

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, 설명절 '농지이양 은퇴직불' 집중 홍보

✎ 송덕만 기자 | ☎ 승인 2026.02.12 15:55

[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(지사장 정찬조)는 직원 20여 명이 설 명절을 맞아 12일 고흥전통시장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 집중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.



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고흥전통시장에서 '농지이양 은퇴직불' 집중 홍보에 나섰다. [사진=농어촌공사 고흥지사]

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은 고령농업인(만 65~84세)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.

농지를 즉시 매도하는 경우 1ha당 월 50만원(연 600만원)이 지급되며, 일정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방식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(연 480만원)이 지원된다.

정찬조 고흥지사장은 "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

송덕만 기자 dm1782@naver.com